

BTS 제이홉 일본팬들, 복구에 '희망 조형물' 전달

내일 남도향토박물관서 기탁식
초록우산재단에 장학금도 전달

광주시 복구가 세계적 케이팝 스타 BTS 멤버인 제이홉의 일본 팬들로부터 '청소년 희망 응원 선물 패키지'를 받는다.

16일 복구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앞에서 제이홉 일본 서포터즈인 'HOPE-FULL PLACE' (이하 일본 서포터즈)의 '희망 상징 조형물 기탁식'이 열린다.

이번 기탁식은 제이홉 일본 서포터즈가 팬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작한 희망 상징 조형물을 복구에 전달해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기탁식에는 문인 복구정장을 비롯해 일본 서포터즈 운영진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HAPPY △LOVE △JUST DANCE △SUN △PEACE

△STREET 7개 단어가 모여 'HOPE' 단어를 상징하는 조형물 제막식과 기념 촬영이 진행된다.

또 이 자리에서 일본 서포터즈는 춤과 노래에 재능 있는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고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장학금도 전달한다.

문인 복구정장은 "미래세대가 꿈을 키워가기 위해 지역 사회에 선행을 베풀어 준 제이홉 일본 팬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선행을 마중물 삼아 복구가 계획한 희망의 거리(HOPE STREET)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구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삼각·일곡동 일대에 'Dream your Hope!'를 주제로 'HOPE STREET'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일곡중학교에는 주민 생활문화 복합시설인 △HOPE CLASS



18일 오후 6시 광주 복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앞에서 제이홉 일본 서포터즈인 'HOPE-FULL PLACE' (이하 일본 서포터즈)의 '희망 상징 조형물 기탁식'이 열린다. 사진은 조형물 야간 조감도. **광주 복구 제공**

(희망 교실) △희망 이음터가 교육청 희망의 거리 협력 사업 일환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 중 청소년 창의 활동과 희망의 거리 콘텐츠 공간 등으로 활용될 '희망 교실'은 이달 말 개관을 앞두고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퍼포먼스마케팅 워크숍 2기 모집
동구청년센터, 22일까지 접수

광주 동구가 '2024 동구청년센터 퍼포먼스 마케팅 워크숍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청년 취업준비생과 마케팅 실무 종사자를 위한 실무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30분께 동구 청년 아지트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모든 분야의 직무에 적용 가능한 마케팅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지역 청년들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광주지역 내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마케팅 인재 영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마케팅 전문기업 '아토모스' 신준섭 대표가 강사로 나서 비즈니스의 이해, 마케팅의 이해, 광고 소재 제작, 성과분석 및 관리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광주 거주 만 19~39세 청년이며 참가를 원하는 청년들은 이달 22일까지 동구청년센터 아지트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많은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잡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광주에서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헌기 기자

운영평가 '우수기관' 장관상 수상
남구 문화정보도서관

광주 남구 문화정보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에 선정됐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61회 전국 도서관대회 개최식에서 남구 문화정보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운영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전국의 공공도서관 1236곳 가운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등에서 우수도서관 후보로 추천한 공공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가 심사위원회와 정부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도서관을 선정했다.

남구 문화정보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36개 도서관과 함께하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도서관 이용 시간 외에도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무인 예약 대출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또 매월 신간 도서와 인기 도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자책 확충에 나서 현재까지 10만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전자책 콘텐츠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 이용자 편의를 크게 개선해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열람실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좌석 예약 시스템 도입하고,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65회에 걸쳐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해 독서문화 활성화를 꾀했다.

이밖에도 초등학생의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문해력 발달을 위해 교과서 과정과 연계한 독서 코너를 신설해 아이들의 독서 활동 및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문화정보도서관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 영역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제공하는 사랑방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 15일 광산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영화 축제, 제4회 '발달장애인 안녕! 영화제'를 개최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광산구, 제4회 '발달장애인 안녕! 영화제' 성료

발달장애인 제작 영화 7편 선배

"오늘 내가,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레드카펫'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스스로 씩씩하게 걸어 나가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15일 광산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영화 축제, 제4회 '발달장애인 안녕! 영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에는 지역 발달장애인과 가족,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영화제는 발달장애인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 빛나는 주인공으로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의 '나의 레드카펫'이란 부제를 내걸고, 발달장애인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영화 7편을 선보였다.

영화제의 시작을 장식한 작품은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방송부 'gsrc(gwangsan rehabilitation center)팀'이 제작한 '우리의 자리'다. 광산구 장애인 평생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추진실·장애원·박시현·양동천 등 4명의 장애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과 편집까지 맡아 만든 영화로, 발달장애인의 고민, 문제인식을 꾸밈없이 담백한 연출로 풀어낸 큰 울림을 선사했다.

이어 △친구(friend) △자유(freedom) 두 소주제로 나눠 6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친구 편에선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의지하는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선예학교의 '선예에서 만나다', 탄소중립 실천을 다룬 선명학교의 '지구를 지키는 소녀',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친구들과 소통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담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의 '벗' 등 3개 작품이 공개됐다.

자유 편에선 일상의 행복을 조명한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gsrc'의 또 다른 작품 '세잎클로버', 장애인 이동권을 소재로 한 비전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현피', 자폐성 장애에 대한 시선을 기록한 장애인 부모와 교사 중심 자조모임 '원오브 어스(One of us)'의 '시선' 등 3편이 관객과 만났다.

영화제 공동주관 대표인 백순영 광주

지적발달장애인지원회광산구지부 지부장은 "울해도 많은 시민이 발달장애인 안녕! 영화제를 찾아주셔서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으로 선 무대에 많은 박수와 합성을 보내주셨다"며 "이 응원이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광산구에서 시작된 발달장애인 안녕! 영화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달장애인의 많은 고민, 꿈과 노력이 깃든 다양한 작품을 만나는 장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마음껏 권리를 누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는 사회, 차별과 장벽 없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이후 매년 열리는 발달장애인 안녕! 영화제는 광산구와 광주 지적발달장애인지원회광산구지부,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다정 피플 퍼스트(People first)', 문화콘텐츠그룹 잇다 등이 공동 주관한다. **김상철 기자**

마을미디어 제작 역량강화 교육
서구, 세큰대 마을자치학과 개강

광주 서구가 마을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마을자치(전문)학과 마을미디어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4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7일까지 서구마을미디어센터에서 마을미디어에 관심있는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마을미디어 이해 및 활성화 사례 △우리 마을 기록 제작 이해 및 기획 △우리 마을 기록 촬영 실습 △우리 마을활동 영상 제작 편집 실습 △마을활동 소개 영상·SNS 업로드 및 공유 등 총 7회 강의로 진행된다.

서구는 1인미디어실 및 오픈스튜디오를 활용해 우리 마을 활동 소개 영상 제작을 위한 기획·촬영, 영상 편집·제작 등의 실습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구는 마을미디어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유로운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주민총회 등 착한서구 마을활동에 대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나설 예정이다.

정의춘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은 "마을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마을미디어 활동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마을공동체가 마을 활동을 스스로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